

大學의 自尊

鄭 柄 朝

(東國大 國民倫理學科)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가 사회의 발전에 끼친 공로는 지대하다.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고 인구 밀도도 조밀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만큼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 일등 공신은 역시 대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나치리만치 집요한 교육열은 대학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었다. 물론 '60년대에는 牛骨塔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받았고, 요사이는 데모의 진원이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학은 본질적으로 리버럴한 곳이다. 言必稱 학문의 자유를 말한다면 그 비판의 강도가 강하다고 해서 대학 문화를 매도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비록 유럽의 수백 년 대학 문화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확실한 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대학은 여전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양적 팽창을 뒤따르는 質的 內實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임 교원의 책임 시간이 아홉 시간인 대로 지켜지는 대학은 별로 없을 듯하다. 책임 시간은 學部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 시간까지를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 교수가 禱이 아닌 이상 전공 과목을 다섯 과목 이상 감

당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특히 人文科學의 경우, 새로운 정보의 흡수에는 눈길을 돌릴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거기에 學會活動과 논문 발표까지 곁들인다는 것은 무척 벅찬 일이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하루 빨리 연구 교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강의의 부담 대신에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실리 위주의 敎育을 改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같이 마땅히 써 먹을 데가 없는 학과인 경우, 4학년 학생들을 제대로 대할 면목이 없다.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 속수무책이다 보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시절에서의 해방감에 들떠 지내고, 4학년이 되면 취직 시험 때문에 또 학과 공부를 게을리 한다. 그러나 대학은 결코 취직의 수련장은 아니다. 우리는 인생과 자유와 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대학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研究 기능이 活性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소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예산 부족에 허덕인다. 연구소장이 되면 어디서 돈을 구해 올까 하

는 점으로 노심초사하게 마련이다. 1년에 논문 집 하나, 세미나 한 번이라도 열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태가지고서는 결코 대학이니, 학문이니 하는 언사를 입에 담을 수 없다. 도서관에 불이 꺼지고, 대학 연구소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대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선 학교 예산에서 연구소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저 인사치레로 있는 연구소가 아니라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소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민간 단체나 문교부 등지의 지원도 이제는 좀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신청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는 일이 있다.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 진행표, 기대되는 효과 등의 천편일률적인 보고서 양식이다. 그 정도는 대학원생단 되어도 미끈하게 써 낼 수 있다. 보다 실제적으로 그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여태까지 그와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있었다면 그 논문의 bibliography를 요구한다든지 등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 태도는 대체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등한시할 뿐 아니라 國粹의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쪽에는 보다 후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인식하기 그지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계는 넓다. 우리는 남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학문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 지적할 점은 번역물에 대한 소홀한 취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리만치 翻譯에 대한 예우가 빈약하다. 원고료도 창작의 반이다. 교수들의 저작 리스트에도 번역물은 빠지기 일쑤이다. 또 본인도 번역물에 대해서는 크게 내세우지 않는 묘한 버릇들이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번역은 창작보다 오히려 값질 수 있다. 그 특수한 문화 배경을 우리의 센스에 맞게 번역한

다는 것은 예술에 버금간다. 지금 대학 강단에서 있는 교수들 세대 가운데 을유문화사의 세계문학전집을 안 읽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서양을 알았고 느꼈다. 그런데 외국어 실력이 충분치 못한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읽힌단 말인가? 요사이도 대학마다 전공에 따른 영서 강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도대체 한 학기에 몇 페이지를 읽어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신입생 환영회라고 빠지고, 개교 기념 행사라고 빠지고, M.T.간다고 빼 먹고, 데모하느라 빠지고,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어이가 없어지지 않는가 말이다. 젊은이들의 독서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번역서의 보급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전공 과목에 관한 한 학기에 10권 이상은 독파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번역 작업은 매우 귀중한 학문의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당연히 번역서는 그 교수 개인의 연구 업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훌륭한 번역물을 바탕으로 해야 비로소 참신한 연구 업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결여시킨 채, 바로 학문의 완성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물을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간접적으로 특정 언어를 교육시켜 나갈 수가 있다. 또 번역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 알게 해 줄 수도 있다.

끝으로 지적할 점은 졸속을 피하는 태도이다. 물론 연구에는 어느 정도 상한선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단시일 안에 반드시 어떤 결론을 유도하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학문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學的 質問의 준 말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자신의 견해와 과정을 진술하는 테크닉은 결여되어 있다. 흔히 학생들에게 쓰는 말 가운데 “학문에 王道는 없다”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도 기성 세대들은 스스로 그 金言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나 반성할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대학은 겸손하게 스스로의 位相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학문의 虛實을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려는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오늘의 대학은 위기의 벼랑에 서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師道가 팽개쳐진 채, 스승과 제자 사이를 잇던 그 신뢰의 끈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는 결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다. 때로는 人格의 모범체이며, 인생의 스승이자 학문의 道伴이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과 같은 끈끈한 情感 사회에서는 이 훈훈한 인정이 師弟간의 유일한 교통로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은 이 교통로를 차단해 버리고 말았다. 새삼스럽게 불행했던 과거를 되새김을 필요는 없을 줄 안다. 그러나 무참히 깨어져 버린 그 인격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참기 어려운 忍苦의 세월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은 결코 돈이 많거나 권력과 가까운 직업은 아니다. 다만 인격적 신뢰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토해낼 수 없다면, 또 그들의 외침에 냉담한 사회라면 그것은 바로 병든 사회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보여진다. 선생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학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요사이 대학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단적으로 대학인들 사이에는 '주체'라는 공허한 개념에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이미 없어져 버렸다. 상식적이지만 대학에는 설립자인 재단, 교육·연구자인 교수, 학문 전수자인 학생, 그리고 대학 행정의 실무자인 직원 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륜을 쌓아 가노라면 동창회가 생기게 마련이고 또 어느 특정 지역의 주민들도 대학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의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식의 발상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즉,

대학 구성원이 하루 빨리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재단이 없다면 어떻게 학교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재단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느냐, 혹은 각 구성원들이 똑같은 지분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은 재단과 총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수나 학생이라고 해서 治外法權의인 존재는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칙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자존은 지키려는 이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때에 따라서는 초연할 줄도 알고 또 정확히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현실 참여는 選別的이어야 한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능이 바로 知性이며 대학이 아닌가? 신라 景德王 때 총담 스님이 지은 노래는 安民歌라고 한다.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언급이 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지던 나라는 태평하리라."

지금 우리 大學의 自彙이 여지없이 구겨지고 있는 까닭은 바로 대학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수가 그 답지 못하고 학생이 저답지 못하다면 교수는 결국 월급 봉투를 탐하고, 학생은 졸업장을 노리는 俗物로 전락하고 만다. 학생은 공부 안 하고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교수는 공부 안 해도 가르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대학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제 새 학기이다. 대학인은 스스로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길만이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길이다. ※